

농업인의 교육요구를 고려한 농촌지도사업의 발전 방향

A Development of the Strategies for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rough the Farmers'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신윤희* · 김대희**

Yun Ho Shinn · Dae hee Kim

Abstract

The Extension Program accountability will continue to be an influential force to develop agriculture and rural area. As we incorporate new approaches into our service program and respond to new domains of knowledge, we must also consider how our assessment strategies may need to change in order to meet local and other external standards.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be what the best way of Extension Service is set farmers' educational needs met and to be what kind of methodologies and role of Extension system should provide for their faced problem solving effectively.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on Farmers' needs toward Korean Extension Servic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observed that, when the farmers' perceptions were analyzed, the most ranked by the farmers' needs was "having nice extension workers to get advice and solve their problems on the farm in all at once." Farmers had especially more positive attitudes in the categories of interest and careers in ag-technology. To do services level up, the headquarter of Rural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must be work with local branches to effectively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mail: yhshinn@seoultech.ac.kr

** 순천대학교 교수. e-mail: daesim@sunchon.ac.kr

deliver their missions and educational objectives to target crops and farmers group. And farmers were strongly needed “a specialized service team will be organized” to work closely with operating services for ag-products processing, packing and marketing. The recommendations were made by: farmers’ needs should be identified and announced by computer networking development to solve their problems faster. Also, provincial and county level service members should have a chance to working at research institute or related work places with their incentives, which system will be easier to meet farmers’ needs and deal with their problems so that the systematic approaches should be managed and recorded their educational attendings, education contents and even their farming corporations. Finally,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should be met to general ag-technology literacy and be balanced with knowledge of other industries and be competitive service with better values in non-agricultural sectors.

주요어(key words): 농촌지도사업(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농업인 교육 요구(Farmers’ Educational Need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농촌지도기관(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업인 교육 사업은 국내외적 농업환경 및 기술변화를 고려한 대 국민 교육 사업이며,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다. 농업인 교육은 특히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하게, 그리고 농업인의 자체적 역량강화와 문화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 여건은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가 크게 진척되었고, 농촌 및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고급화

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유전공학, LED조명, 원격제어 등을 활용한 식물 공장이 세워지는 등 농업기술이 첨단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위기와 도전 상황의 심화되고 있지만, 농업인 및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등등으로 인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은 궁극적으로 농업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국내외 도전과 여건을 극복하는 데 그리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사업이어야 한다. 즉, 시대적 여건을 극복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업인들의 교육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자체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농업인 교육사업의 비전과 전략은 현 시대의 농업 및 농촌 발전 방향에 적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보다 더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농업인 교육 사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이 농업인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그리고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교육 사업으로서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첫째, 농업인들의 교육요구를 고려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둘째, 농촌지도기관이 농업인의 교육 사업에 대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과약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역할 체계가 필요한가?

2. 이론적 배경

2.1.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

농업교육이란 농업이나 농업관련직에 종사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관련 소양을 함양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업적 소양(농업, 농촌 및 농업인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적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농업교육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반교육의 목적과 동일하게 농업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도덕성, 윤리성과 같은 '일반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키우는 것이며, 둘째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생산력을 농업부문에 신속히 흡수하여 타산업과 균형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고, 셋째는 피교육자를 농업경영자 또는 농업기술자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농업은 국민의 기초식량을 제공하고 환경을 유지하는 등의 비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보다 현대적이고 경쟁력있는 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진 전문적인 농업경영자가 고도의 과학기술을 농업에 응용하도록 하는 교육과 함께 비 농업인이 농업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1993).

따라서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은 위의 3가지 농업교육의 역할

을 동시에 지향하는 교육 사업이며, 또한 비 농업인들이 농업의 가치를 재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교육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2.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교육요구

2.2.1. 농업인의 교육요구

교육요구란 학습자가 미래에 희망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학습자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태 사이의 격차 혹은 차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요구는 요구의 발현 차원에서 기본 요구, 잠재적 요구, 표현된 요구, 비교 요구, 규범적 요구, 창출 요구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본 요구란 머슬로우의 요구사다리 7단계를 이용하여 교육요구를 규정하는데, 광의적으로 교육요구란 이상화된 자아를 희망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망의 총체로 규정되며, 협의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행동 등에 대한 능력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잠재적 요구란 학습자나 외부 전문가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의 결핍요소 및 성장요소를 의미한다. 표현된 요구란 학습자와 외부 전문가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결핍요소와 성장요소를 의미한다. 창출 요구란 한 개인이 막연한 느낌을 의식적인 요구로 전환시키는 경험이 있을 때 발생하는 요구를 말한다. 규범적 요구란 전문가나 여타 인증 및 자격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요구를 말한다. 비교 요구란 선별된 특성에 따라서 두 집단이나 개인을 비교하는 데서 발생하는 요구를 의미한다(김진화, 2001).

따라서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란 학습자인 농업인들이 농업인 교육 사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미래에 희망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농업인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태 사이의 격차 혹은

차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적 요소로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요구, 잠재된 요구, 표현된 요구, 창출 요구, 규범적 요구, 비교 요구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2.2.2. 농촌지도기관에 대한 농업인의 주요 교육요구

강대구(2004), 김진모(2006), 농림부(2006) 등의 농업교육 혁신 방안과 정예농업인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도구를 구성하고, 00대학교 영농교육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575명의 농업인들로부터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에 대한 요구를 설문조사 방법으로 의견을 수집, 분석한 결과 중, 앞으로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은 순위로 조사되었다(김대희, 2006).

<표 1>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

농업인이 생각하는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종합 순위
농업인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의 확보와 수시 현장 방문 지도	129	68	49	1
농업인의 교육요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농업인 교육 사업 제공	112	56	67	2
농업교육자료 및 농업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과 제공	56	83	50	3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의 신기술 및 신품종의 신속한 안내 및 교육	52	80	89	4
농업 신기술, 신품종 외에 경영, 유통, 리더쉽, 마케팅 등의 교육 강화	32	16	35	5
농업인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 강사의 양성 및 운용	27	75	28	6
농업과 농촌의 인식제고를 위해 도시민,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11	14	27	7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함양 등 기본 소양 교육 강화	9	5	24	8
농업인교육에의 참가 자격과 혜택(자격증, 사후 관리 등) 등을 업격 관리	6	16	12	9
시뮬레이션, 모바일 교육 등 인터넷 원격 교육 시스템 운영	5	9	8	10
농업, 농촌, 생태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능력 함양 교육 강화	2	8	24	11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업인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의 확보와 수시 현장 방문 지도, 둘째, 농업인의 교육요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농업인 교육 사업의 제공, 셋째, 농업교육자료 및 농업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과 제공, 넷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신기술 및 신품종의 신속한 안내 및 교육, 다섯째, 농업 신기술, 신품종 외에 경영, 유통, 리더십, 마케팅 등의 교육 강화, 여섯째, 농업인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 강사의 양성 및 운용, 일곱째, 농업과 농촌의 인식제고를 위해 도시민,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었다.

이상의 농업인들의 교육요구를 종합해 보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는 현장 방문지도를, 그리고 이에 따른 교육요구의 파악과 농업인 교육요구를 반영한 농업인 교육 사업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농업정보, 경영과 마케팅, 도시민과 소비자 등에 대한 농업과 농촌의 인식제고 등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농업인들은 보다 능력있는 전문 강사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인 교육 사업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업인들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교육요구들을 정리한 주요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김대희, 2006).

첫째, 농업인들이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들 중 필요도가 높은 분야(5점 만점 중 4점 이상의 평균)는 1) 개발, 도입된 신기술, 신품종에 대한 교육 및 보급, 2) 경영, 홍보, 판매 등의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환경 및 유기 농업기술의 교육 및 보급, 4) 저장, 가공, 포장 기술에 대한 교육, 5) 농업정보의 안내, 이용방법 등 정보능력 함양 교육, 6) 영농 및 축산 기술에 대한 기본 교육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교육내용을 기입하도록 한 결과도 상기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둘째, 농업인들이 영농작물별 교육요구도(직접 필요한 작목과 교육내용을 기입하도록 한 결과)에서는 1) 영농 및 축산 기술에 대한 기본 교육을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2) 개발, 도입된 신기술, 신품종에 대한 교육 및 보급과 3) 환경 및 유기 농업기술의 교육 및 보급, 4) 경영, 홍보, 판매 등의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셋째,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업인 교육 사업의 강사는 순위별로 1) 민간기술자, 2) 연구사, 3) 선도농업인, 4) 지도사 5) 대학교수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영농작물 교육에서의 강사의 선호 순위는 1) 연구사, 2) 선도농업인, 3) 지도사, 4) 민간기술자 순이었다.

넷째,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교육방법 순위는 1) 강의 및 강연, 2) 시연 및 실습, 3) 견학 등이었으며, 작물교육 시 선호 순위는 1) 시연 및 실습, 2) 강의 및 강연 순이었다.

다섯째, 농업인들은 성별, 연령별, 생활수준별, 작물별, 경영규모별, 정보수준별, 경영단계별, 영농조합 소속여부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고려한 요구조사와 교육내용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교육 시기는 여름과 겨울 등의 농한기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또한 영농 및 사육이 이루어지는 농번기 현

장에서의 교육을 요구하는 빈도도 많은 편이었다.

일곱째,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교육 장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내외 선진 현장, 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 등의 순이었다.

여덟째,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업인 교육 참가 혜택의 선호순위는 1) 농업정책 등에의 사업신청 시 가산점 등, 2) 기념품, 좋은 분위기, 참가비 지원 등의 편의 제공, 3) 차기나 해외 농업인 교육훈련에의 참가 가산점 및 참가비 지원, 4) 학위나 수료증 등 자격증이나 인증서의 순이었다.

아홉째,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매체의 선호 순위는 1) 농촌지도사의 방문지도, 2) 농업인 교육 사업 등의 집합 교육, 3) 소책자 등 우편물 순이었다.

열째,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의 교육대상자 구성방식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농업인들의 높은 선호를 보인 것은 1) 어린이 보모 운영 지원, 가족 설득 등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쉽게 참여하도록 조치하는 것, 2) 지역 관련 없이 관심사항이 동일한 교육대상자로 구성하는 방식 등이었다.

열한째,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업인 교육 강사가 교육진행 방식에서 중요시해야 할 점들의 우선순위는 1)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2) 솔직하며,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업인과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 3) 중요한 사항을 신속히 설명하고, 편한 분위기에서 토론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의 순이었다.

열두째, 농업인들이 기타 자유롭게 기술한 요청사항에서 주요한 사항으로는 지도기관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 성의있는 자료 준비, 교육 참여기회의 확대, 성공 사례 정보 제공의 강화 등이었다.

3. 구성주의 교육관과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

3.1. 구성주의 교육관에 따른 농업교육의 발전 방향

교육을 학습자 중심적 시각에서 봐야 하며, 학습을 위해서는 자기조절과 성찰 및 추상화를 통한 개념적 구조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이명근 역, 2005).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자가 자신에게 부과되는 해결과제에 대하여 스스로 자료와 정보를 찾고, 과제 해결을 위해 협조와 조력자를 구하고, 이들과 더불어 바람직한 해결 대안들을 모색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 실천, 평가 및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며(자기주도적 학습이어야 함), 따라서 교육의 주체는 가르치는 사람(교수자)에서 배우는 사람(학습자)로 이동되었으며, 또한 교육의 결과는 학습자에게 내면화시키는 것이며, 교육의 효과는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구성주의 교육관에 따라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사업의 발전 방향을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업인 교육 사업은 현대 구성주의 학습관을 반영하여 농업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농업인 교육 사업은 농업인들의 자체역량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농업인 교육 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현장에서 문제의 파악과 해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3.2.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

농진청(2006)의 '06 새해영농설계교육 평가 및 농업인 교육혁신 연찬회 자료, 농림부(2006)의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2006)의 농업교육 혁신과 성공적 실행방안-2006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의 자료들에 제시된 농업인 교육의 발전 방향들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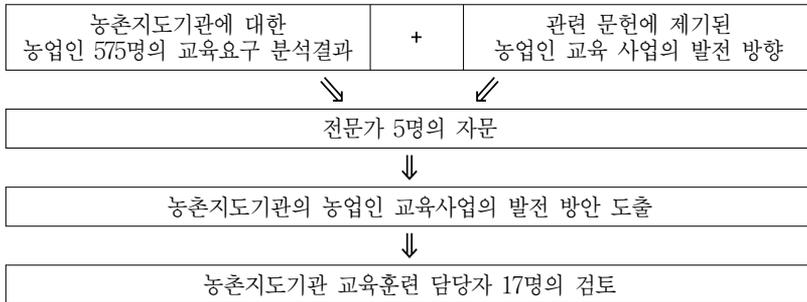
- 첫째, 농업인의 교육요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 농업인 교육 사업 효율적인 체제(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
- 둘째, 농업교육 전문가 인력풀 관리 및 전문 농업인 교육자 양성
 - 농업교육 위원회 및 인력양성 재단 운영
- 셋째, 지역 실정을 반영한 농업교육 체제 정비
 - 지역 특화품목 교육, 현장위주 교육 및 평가 강화
- 넷째, 농업(농촌)인을 위한 관계 기관(지자체, 농협) 및 농업인 자체 조직 등과의 효율적 연대
 - 경영, 마케팅, 브랜드 육성 등 종합컨설팅 및 교육 강화
- 다섯째, 품목별 필수 교육 인증 및 모델화, 농업인 자율 학습시스템 구축
- 여섯째,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국내외 우수 교육사업 활용
 - 소수 정예 실용, 현장 학습 체제 강화 등이었다.

4. 연구체계 및 방법

4.1. 연구의 체계 및 절차

이 연구는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농촌지도기관의 교육 사업에 참여

한 575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농업인 교육 사업에 대한 교육요구 조사결과, 또한 관련 문헌에서 제기된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5명의 지문을 거쳐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안(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다시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17명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안으로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체계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았다.



<그림 1> 연구의 체계 및 절차

4.2.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 검토 내용의 제작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전문가 검토 내용은 2006년에 57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김진모(2006)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 교육혁신 방안과 강대구(2004)의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의 발전 방향, 농촌진흥청(2006)의 '06 새해영농설계교육 평가 및 농업인 교육혁신 연찬회 자료, 농림부(2006)의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 등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반영하여 전문가 5명의

자문을 거쳐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교육 훈련 담당자의 검토내용이 구성되었다.

우선적으로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인 교육 사업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은 구성주의적 시각(학습자 중심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농업인이 자신들의 현재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수준을 진단하고,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건과 가능한 외부지원을 바탕으로 협력적으로 대안들을 모색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세워나가며, 이를 실행, 평가해 나가는 노력과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이와 관련하여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또한 농업인 교육 사업은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과 과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농업인 교육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전문가 검토 내용의 구체적 항목들은 1. 농촌지도사업의 방향, 2. 농업인의 자기주도성 향상 방안, 3. 품목별 교육 자료의 제작 및 활용을 위한 농업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4. 농업교육 전문 강사의 양성, 5. 농업인의 교육 요구 수렴, 교육 평가, 지원체제, 6. 신기술, 신품종에 대한 안내 및 교육, 7.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 판매 종합컨설팅, 8. 농산물 저장, 가공, 포장 기술 교육, 9. 환경, 유기농업 기술 교육 및 보급, 10. 현장 방문 지도의 강화, 11. 전문 교육장의 운영, 12. 농업인 교육 인센티브의 강화, 13. 농업인 자율 학습 체제 지원, 14. 농업인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15. 기타 농업인 교육사업의 지향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4.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는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담당자들(17명)과 농촌지도관련 학계 전문가들(5명)을 대상으로 7점 만점으로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고, 각각의 동의 정도를 평균 점수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농업인의 교육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안

문헌 연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이에 대한 분석 등을 기초로 하여,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지향 방향(안)들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지향 방향(안)들에 대해서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담당자들(17명)과 농촌지도관련 학계 전문가들(5명)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인 지향 방안들은 다음과 같았다.

5.1.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지향 방안

5.1.1. 농촌지도사업의 지향 방향 : 평균 6.59 (7점 만점)

농촌지도사업의 지향 방향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도기관 및 교육전문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품목별 수준별 교육 내용 및 농업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농업관계 기관 및 농촌지도기관 간의 효율적인 역할 체계를 정립하는 한

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지도체제 및 인력의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1) 다른 기관과 단체의 농업교육에 비하여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이 농업인 교육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기술센터 간의 역할체계가 보다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도의 교육계획을 수렴하여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며, 진흥청에서 도단위 교육인력의 능력함양을 지원해야 한다. 4)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도의 교육요구를 종합하여, 도와 시군에서의 교육계획 수립 지원 및 상호 역할분담 조정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

5.1.2. 농업인의 자기주도성 향상 방안: 평균 6.47(7점 만점)

농업인 교육사업은 농업인들이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가능한 외부지원을 바탕으로 협력적으로 대안들을 모색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세워나가며, 이를 실행, 평가해 나가는 노력과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농업, 농촌인을 육성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즉, 농업인들의 주체적 노력과 그리고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농업인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1) 농업교육 관련 대학, 농협, 연구소 등과 상호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상의 하달식 정책 교육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3) 농업인들로부터 의견 수렴된 내용과 지도기관의 대안에 대하여 상호 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 4) 교육 안내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교육의 강화를 포함하여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5) 품목별 농가 수가 적

은 시군의 경우 도 단위 중심, 또는 인근 시군을 통합하여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6) 지도기관 및 농업교육 관련 기관 간의 상호 역할 조정 및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 효율적이어야 하며, 농업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7) 지도기관 특히 진흥청과 연구원에서 품목별, 수준별 교육 자료의 제작과 보급, 전문 교육 인력풀 관리, 교육전문가 양성 및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작, 관리, 제공해 주어야 한다. 8)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교육의 범위를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 도시 소비자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5.1.3. 품목별 교육 자료의 제작 및 활용을 위한 농업교육 포털사이트의 운영: 평균 6.29(7점 만점)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작물별로, 그리고 농업인이 수준별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자료들을 제작하여 통합적인 농업교육 자료 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과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품목별 및 수준별 농업 교육자료 및 국내외 우수 영농, 농촌의 성공 사례 등을 적극 정보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져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1) 포털사이트는 진흥청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연구, 교육 및 지도, 사업 및 정책 등을 일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양질의 교육 자료를 DB화하여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군의 여건이 반영된 우수 교육 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자료 제작 전담 조직 및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다른 농업교육 관련 연구소, 단체, 전문교육자들의 자료들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원 등이 유관 전문기관, 관련 전문가, 우수 농가 등과 협

력하에 양질의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6) 주요 영농, 축산 품목에 대한 학습을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준별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7)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자료의 지속적인 업로드가 이루어져야 한다. 8) 농업인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활용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5.1.4. 농업교육 전문 강사의 양성: 평균 6.24(7점 만점)

농촌진흥청에서는 품목별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전문 강사로는 농촌지도사, 연구사를 포함하여 민간의 선진 농업기술자, 경영자, 대학교수 등이 적절하며, 이들의 자체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우수 사례 선정, 포상-능력 함양 및 전파의 기회 등으로 활용)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 농업인 교육을 잘하는 연구사, 선도농업인, 민간기술자들을 전문교육자 인력풀로 운영해야 하며, 연구사, 지도사, 선도농업인에게 품목별 전문가 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전문 교육자 양성과정 시 강의법 외에 시연 및 실습 운영, 견학 진행, 회의 및 토론 등의 교육 기법들을 다양하게 습득시켜야 한다. 3) 강의 능력의 함양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요령, 중요한 내용을 신속히 설명하고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솔직한 태도로 의견을 청취하는 농업인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전문 강사의 자질 검증(평가)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5) 농촌 지도사나 연구사가 전문가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등에 지방의 지도사들이 능력함양을 위한 파견 근무 제도가 필요하다. 7) 품목별 전문 강사 인력풀이 운영되어 지방 교육기관에서도 쉽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5.1.5. 효율적인 교육요구 수렴 및 지원 체제: 평균 6.24(7점 만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업인 교육, 평가, 요구 수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 유지 및 관리해 나가야 한다. 즉,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정기 및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도와 진흥청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1) 교육평가 프로그램이 기준안이 별도로 준비, 지원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평가지를 가급적 통일하여 인터넷으로 교육 수요 등을 집계하면, 도 및 전국 단위 교육수요가 쉽게 파악되고, 이에 따른 지원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성별, 연령별, 생활수준별, 작목별, 경영규모별, 정보수준별, 경영단계별, 영농조합 소속여부 등에 따라 교육수요가 다르므로(김대희, 2006) 차별화된 교육지원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 등이 필요하다.

5.1.6. 신기술, 신품종에 대한 안내 및 교육 강화: 평균 6.47(7점 만점)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농업 신기술이나 신품종에 대한 신속한 안내, 교육,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기술, 신품종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하며, 적합한 농가 등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검증 후 입찰 등을 통해 조기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선진농가는 관련 연구소나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5.1.7.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 판매 종합컨설팅 교육 강화 및 조직화:

평균 5.81(7점 만점)

지역별, 권역별로 통합 브랜드의 개발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여야 효율적이므로, 지자체, 농협, 생협, 기업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별로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및 유통, 판매까지를 고려한 종합 컨설팅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품목조직별 및 선진농가 등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농업인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교육능력, 자체적 사업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영농조합 등에서의 가입을 적극 권장해야 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경영, 홍보, 판매 등의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농업정보의 안내 및 이용 등 정보능력 함양 교육을 강화해야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5.1.8. 농산물 저장, 가공, 포장 기술 교육: 평균 6.47(7점 만점)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외부 관련 기관 등의 협력 및 지원 하에 농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기술 등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관련 기관의 협력을 얻어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저장, 가공, 포장 기술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지도기관은 생산 분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저장, 가공, 포장 등은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5.1.9. 환경, 유기농업 기술 교육 및 보급 체계화: 평균 6.25(7점 만점)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외부 관련 단체 등의 협력 및 지원 하에 환경 및 유기 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 및 기술 보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외부 유관 기관과 도, 시, 군 농촌지도

기관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최근의 도시 농업 및 유기농업 체험교육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1.10. 현장 방문 지도의 강화: 평균 6.65/5.94(7점 만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의 협조 하에 농업인의 애로점을 파악,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방문지도 및 교육 요원을 적극 양성, 활용해야 한다(평균 6.65). 이를 위해서는 우수 현장 방문지도 및 교육요원에 대한 선발, 포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등을 통하여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정보 제공 수준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현장 방문이 가능한 농촌지도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등에 도, 시, 군의 우수 교육자의 능력 함양을 위한 파견 근무(평균 5.94) 등이 필요하다.

5.1.11. 전문 교육장의 운영: 평균 6.41(7점 만점)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단위 중심으로 음향 및 각종 교육 기자재가 잘 갖추어진 지역별 전문 농업교육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농업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평생교육 등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화센터 등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여러 장소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특화품목 등에 대해서는 산지에 전문 교육장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5.1.12. 농업인 교육 인센티브의 강화: 평균(점수) 참조(7점 만점)

농업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는 교육비용의 지원 등 획일적 시책보다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사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된 의견들로는 관련 농업정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평균 5.94), 학위

과정화 등 교육이수제를 강화하는 방안(평균 5.59), 교육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평균 5.53), 탁아지원 등 여성들의 교육 참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평균 5.65), 교육대상자의 교육이력 관리 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방안(평균 5.82) 등이었다.

그리고 교육이수제, 교육대상자 교육이력 관리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자율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프로그램(자가진단 평가지)을 개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1.13. 농업인 자율 학습 체제 지원: 평균 6.19(7점 만점)

교육 자료의 제공 및 강사 지원 등 농업인 품목 단체에 대한 자율학습 체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수 농업인 교육단체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해야 하며, 우수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인증 및 우수 교육 사례로 선정,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품목 단체 등의 우수 교육 추진 사례 등이 지도기관들에게도 확산,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인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교육능력, 자체적 사업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영농조합 등への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이러한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영, 홍보, 판매 등의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농업정보의 안내, 이용방법 등 정보능력 함양 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1.14. 농업인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평균 6.00(7점 만점)

양질의 농업교육을 많은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횟수를 확대하고, 인터넷 등으로 원격 수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영농시기 등을 잘 고려하여 교육 시기 등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타 도, 시, 군 등과 교육 시기 등에서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으로 교육 인원과 시기 등이 조절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으로 교육 수요 등을 집계하여 상호 공유하게 되면 도 및 전국 단위 교육 수요가 쉽게 파악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5.1.15. 기타 농업인 교육사업의 지향 방안

기타 농업인 교육 사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안들로는 1)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인 교육사업의 개선 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학계, 산업계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포괄적인 농업인 교육사업의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도기관이 중추적인 관리, 연계 업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3) 일정 규모 이상의 농촌지도기관에는 교육전담 부서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농업인들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노후 생활, 건강관리 등의 기본 소양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5.2.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을 위한 농촌지도기관들의 효율적 역할 체계

앞의 5.1.의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지향 방안과 더불어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농촌지도기관의 효율적 역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청의 주도적 역할 하에 지방 농촌지도기관 및 농업교육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종합적인 농업인 교육 사업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영농작물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높으므로 주요 작물별

로 수준별 교육 자료가 체계적으로 제작되어 농촌지도기관 및 타 농업인 교육 단체나 품목별 농업인 단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산하 연구원과 지방 농촌지도기관의 협력 및 관련 농업인 교육 전문단체 및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주요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수준별 교육 자료 및 농산물의 가공, 포장, 유통, 수출 등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팀을 편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그리고 품목별, 수준별 농업인 교육 자료들을 활용한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농업인 교육 사업에 대한 요구가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우수 농업인 교육전문가의 양성, 운용과 연계시킴으로써 적기 현장 및 방문 교육 등 농업인 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시, 군 등에서 실시되는 우수 교육 기회를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교육기회 증대와 교육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4) 농촌진흥청에서는 품목별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전문 강사로는 농촌지도사, 연구사를 포함하여 민간의 선진 농업 기술자, 경영자, 대학교수 등이 적절하며, 이들의 자체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우수 사례 선정, 포상-능력 함양 및 전파의 기회 등으로 활용)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 시군의 우수 교육요원들이 농촌진흥청 산하의 연구소 등에서 능력 함양을 할 수 있는 파견 근무 등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현장 교육과 방문 지도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교육요구 파악 및 농업인들이 스스로 교육이력 관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업교육 이력관리 체계의 범위는 품목단체 등

농업인들의 자체 영농조합의 우수 교육을 이수한 내용 등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정보 활용, 의사결정, 자기주도 교육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영농조합 등への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6)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촌지도기관에는 교육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하며, 도시 소비자 및 농촌 주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농촌주민 및 연령대가 높은 농업인들을 위한 노후 생활 및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적극 개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575명의 농업인들의 교육 요구, 문헌 연구를 통해 제기된 농업인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들을 종합하여 농촌지도 및 농업교육 관련 전문가 22명의 자문을 통해 설정된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의 지향 방안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농촌지도사업의 지향 방향(평균 6.59~7점 만점)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도기관 및 교육 전문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품목별 수준별 교육 내용 및 농업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농업관계 기관 및 농촌지도기관 간의 효율적인 역할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지도체제 및 인력의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농업인의 자기주도성 향상 방안(평균 6.47)으로 농업인 교육사업은 농업인들이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가능한 외부지원을 바

탕으로 협력적으로 대안들을 모색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세워나가며, 이를 실행, 평가해 나가는 노력과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농업, 농촌인을 육성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즉, 농업인들의 주체적 노력과 그리고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농업인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업교육 관련 학계, 농협, 관련 연구소, 농업인 자체 조직 등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 훈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인근 시군의 통합교육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며, 도시민 및 소비자의 농업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 품목별 교육 자료의 제작 및 활용을 위한 농업교육 포털사이트의 운영 방안으로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작물별로, 그리고 농업인이 수준별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자료들을 제작하여 통합적인 농업교육 자료 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과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품목별 및 수준별 농업 교육자료 및 국내외 우수 영농, 농촌의 성공 사례 등을 적극 정보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져 한다.

이와 관련해서 포털사이트는 진흥청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연구, 교육 및 지도, 사업 및 정책 등을 일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질의 교육 자료를 DB화하여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군의 여건이 반영된 우수 교육 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자료 제작 전담 조직 및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 양질의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자료의 지속적인 업로드가 이루어져야 하고, 농업인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활용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4) 농촌진흥청에서는 품목별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전문 강사로는 농촌지도사, 연구사를 포함하여 민간의 선진 농업 기술자, 경영자, 대학교수 등이 적절하며, 이들의 자체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우수 사례 선정, 포상-능력 함양 및 전파의 기회 등으로 활용)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5) 효율적인 교육요구 수렴 및 지원 체제와 관련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업인 교육, 평가, 요구 수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 유지 및 관리해 나가야 한다. 즉,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정기 및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도와 진흥청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주요 지향 방안들로는 6) 신기술, 신품종에 대한 안내 및 교육 강화, 7)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 판매 종합컨설팅 교육 강화 및 조직화, 8) 농산물 저장, 가공, 포장 교육의 강화, 9) 환경, 유기농업 교육 및 기술보급 체계화, 10) 현장 방문지도의 강화, 11) 농업인 교육 전문 교육장의 운영, 12) 농업인 교육 참여 인센티브의 강화, 13) 농업인 자율 학습 체제 지원, 14)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15) 기타의 지향 방안으로는 점차 고령화되는 농업인들을 위한 노후 생활 및 건강관리 등의 소양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농업인 교육 사업이 농업인들이 만족하는 교육 사업으로 평가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면

첫째, 농업인들의 교육 요구 및 도전적 환경들이 시대적, 환경적,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농업인 교육 사업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전략과 효율적인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은 교육대상자들(농업인, 농업 후계자, 귀농인, 도시민 및 가정주부 등)이 손쉽게 관련 정보 및 교육 자료들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지도기관의 농업인 교육 사업은 농업인을 포함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여건과 농촌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들의 자기주도적인 능력함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외에 정부, 지자체, 민간 교육기관 등 과도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대구. (2004).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2004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 고운미. (2004). *환경 NGO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희. (2006). *농촌지도기관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발전방향*. 농촌진흥청 2006년 일반과제 보고서.
- 김진모. (2006).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 교육혁신 방안*. 대통령 지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업교육 혁신 토론회 및 2006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 김진화. (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교육과학사.
- 농림부. (2006).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향*. 농림부.
- 농촌진흥청. (2006).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농촌진흥청 정책홍보관리관실 평가조정담당관실.
- Burr, W. R., Leigh, G. K., R. D. and Contantine, J. (1979). *Symbolic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 Schindler-Rainman E., & Lippitt R. (1984). *The Volunteer Community*. NTL. Learning Resources Corporations.

논문투고일: 2012. 2. 11
1차수정일: 2012. 3. 10
게재확정일: 2012. 3. 21